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분석과 그 대책

-피램 (김민재)

강사 소개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최상위권 입시 사이트 오르비 & 포만한 국어영역 베스트 칼럼니스트
- 수능 국어영역 독학서 'P.I.R.A.M 수능 국어' 단독 저자

목차

1. 2019학년도 수능 - 왜 어려웠나?

- 어려워진 화작
- 낯선 문법 문제
-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 선지판단력
- 시간 부족

2. 2020학년도 수능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그래도 기출
-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 기르기

1. 2019학년도 수능 - 왜 어려웠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학년도 수능. 오탈자 발생으로 정오표를 배부하는 어이없는 일로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역대 최초의 1등급 컷 80점대 (84점)를 만들어낸 초유의 시험.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등급	국어		
	원	표	백
1등급	94	128	96
2등급	89	123	89
3등급	82	117	76
4등급	74	109	61
5등급	62	98	41
6등급	48	84	23
7등급	34	71	11
8등급	24	61	4

등급	국어		
	원	표	백
1등급	84	132	96
2등급	78	125	90
3등급	70	117	77
4등급	61	107	60
5등급	51	95	41
6등급	41	84	24
7등급	31	73	11
8등급	22	63	4

왼쪽은 2018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컷, 오른쪽은 2019학년도 수능 원점수 등급컷입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등급 커트라인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2~4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실제로 수능 체감 난이도를 결정하는 등급대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1등급 커트라인은 10점이 내려갔지만, 2등급 커트라인은 11점, 3등급은 12점, 4등급은 13점.. 이런 식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래도 중상위권들이 상위권 꽁무니는 쫓아갈 수 있었던 작년 수능과 달리 중상위권들은 상위권 근처에도 가 보지 못 하고 나가떨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1점 차이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60만명 정도의 엄청난 표본에서 1점 차이가 내려면 얼마나 많은 표본들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19학년도 수능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일 뿐 아니라, 중상위권들과 상위권들의 격차가 훨씬 벌어졌을 정도로.

그렇다면 2018학년도 수능과 2019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오버슈팅, 부호화'라는 역대급 지문이 출제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과 이토록 큰 차이를 낳은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워진 화작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은, 2018학년도 수능은 2019학년도 수능에 비해 '화법과 작문, 문법 + 문학'파트가 훨씬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부담을 던 '상위권' 학생들은 '오버슈팅, 부호화'라는 킬러 비문학 지문들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이들을 뚫어낸 것이죠. 해당 지문들을 뚫어내지 못한 '중상위권' 학생들은 최소한 '화작문 + 문학' 파트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구요.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은 어느 하나 쉽게 출제된 파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도 어느 한 파트에 집중하지 못 하고 골고루 틀리게 되었고, 이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죠. 이런 요소들이 10점이라는 1등급 커트라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그 지옥 같은 시간의 첫 번째 지문이었던 화작 파트를 먼저 살펴 봅시다.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

학생 1: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이 기사문은 네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학생 3: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A]

위의 (가) 부분은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화작 파트이고, 아래의 (나) 부분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화작 파트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먼저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평가원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현지', '민호' 등 이름을 붙여 주어 수험생들이 각 주장의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현지'의 첫 대사를 통해 글의 주제를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은 어땠나요? 이름이 아닌 '학생 1', '학생 2'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첫 대사에서 '사제 동행 마라톤 행사'라는 글감만 언급할 뿐 자세한 주제를 던져 주지 않아 독해의 방향을 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A]

민호 :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영수 :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B]

민호 :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② [A] :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A] :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④ [B] :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⑤ [B] :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 5번 문항입니다. [A]와 [B]에서만 근거를 찾으면 되고, [A]와 [B]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A]

학생 1 :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학생 3 :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학생 2 :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

학생 1 : ㉡네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생 3 :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네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 2 : 응, 그래.

[B]

학생 1 :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

학생 2 :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학생 3 :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 2 :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학생 3 :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2 :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3 :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엔 2019학년도 수능 7번 문항입니다. 앞의 5번 문항과 매우 유사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일단 [A], [B]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앞서 말했듯이 '학생 1', '학생 2'등의 표지로 헷갈리게 만들었고, '영수'와 '민호'의 대화만을 다루었던 5번 문제와는 달리 '학생 1', '학생 2', '학생 3'의 대화를 모두 다루어서 시간을 최대한 뺏고 있죠.

여기에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6평 '반딧불이' 관련 지문에서 잠깐 보여줬던 유형인 '많은 조건 처리형' 문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6평 때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효의 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②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 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③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 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④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⑤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와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미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당시 꽤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고, 학생들로부터 '씹딧불어'라는 별명을 얻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좋은 점을 포함하면서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선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르게 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필연적으로 오답률이 높아지고 그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시간을 쏟다 보면 뒤 파트의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원은 이 점을 의식한 것인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생회장은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② 학생회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뻤다."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 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③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인상적인 행사였다. 행사 이후 K 군 가족은 성금을 전달받고,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④ 학생회장은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 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됐다.
⑤ 학생회장은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달리며 뜻을 모을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학생회에서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번에도 '화합'을 드러내고,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행사 이후 결과까지 포함해야 하는, 많은 조건을 찾으면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의 길이도 모두 3줄을 넘어갈 정도로 길었기에 학생들에겐 더더욱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이 외에도 화작에서 시간을 끌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처리해야할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학생들 특성상 화작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화작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자 크게 당황했고, 문학과 비문학마저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출제되면서 '역대급' 국어 시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화작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문법은 또 어땠을까요?

낯선 문법 문제

2019학년도 수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낯선 문법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던 생소한 개념들을 이용해 학생들을 당황시키고, 시간을 쓰게 만들었죠.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 입술 모양 /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최소 대립쌍'이라는 개념을 물어 보거나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약속 날짜를 너무 <u>받게</u> 잡았다.
㉡ 서로 <u>받게</u>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u>바투</u> 잡았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u>바투</u>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밭다 형
1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
2 길이가 매우 짧다.
¶ 새로 산 바지가 **밭아** 발목이 다 보인다.
3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밭아서** 큰일이야.
⋮

	ⓐ	ⓑ	ⓒ
①	밭게 부	㉠	㉡
②	밭게 부	㉡	㉢
③	밭게 부	㉡	㉣
④	바투 부	㉢	㉠
⑤	바투 부	㉣	㉠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들어봤을 단어인 '바투'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사실 문법의 경우에는 갑자기 교과 외 과정을 낸 것도 아니고 낯선 개념을 물어보더라도 지문 혹은 <보기>의 독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 문제들이 각각 '문법 기출문제'로 남아있을 때 얘기고, 똑같은 문제지만 '수능 시험지 속 문법 문제'가 된다면 초조함에 글을 날려 읽게 되고 실수를 범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문법을 잘 하는 학생들, 그리고 평소 독해력을 쌓아둔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주파했을 영역이기는 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 선지판단력

사실상 이번 시험의 성패를 갈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제대로 분석해 보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지판단력'을 깊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위의 화작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정보량을 바탕으로 선지 하나하나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문학과 비문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1. 길고 긴 문제&선지

길어진 지문이야 이제 학생들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길어진 '문제와 선지'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문항이 있습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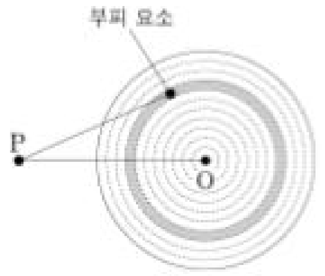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③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각각 한 문제씩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위권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맞혀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빡빡한 시험지 안에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건 제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긴 문제와 선지가 나오면 당연히 학생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에만 정신을 쏟아도 모자란 판국에, '아 빨리 풀어야 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특출나게 길었던 문제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지문, <보기>, 선지 모두 타 시험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길이를 자랑했고, (2014학년도 수능보다 총 텍스트 수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대거 무너뜨린 시험이 된 것이죠.

2. 1대1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지

2018학년도 수능의 특징 중 하나는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오버슈팅, 부호화라는 역대급 난이도의 지문이 출제되었지만 답의 근거가 지문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지문을 읽지 못 하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그런 경향을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일단 아래 문제 보시죠.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6번 문항입니다. 5개 선지 모두 지문에 근거가 있지만, '실체법에는 청구권을 다룬다.' 라든지 '즉, 법률 행위가 있어야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처럼 선지의 내용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문의 '화제'를 정확하게 잡고 그 화제와 관련된 정의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으면서 읽었어야 하는, 즉 지문을 '완벽하게 읽어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작년 수능 경향에 익숙하던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 문제 역시 비슷합니다. 5개의 선지 모두 지문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가능세계'의 정의, '모순 관계'의 정의 등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정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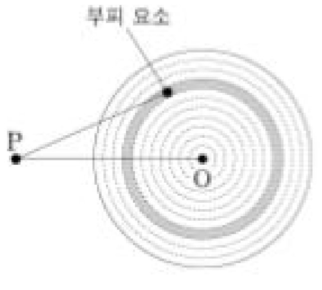
이런 식으로 단순히 눈알 굴리는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출제하다 보니 역시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학생들의 점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3.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묻는 문제

이는 2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1대1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순히 지문을 잘 이해한 것만으로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평가원이 가끔씩 물어보는 '필연적인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항도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항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문제만 출제하고, 나머지 지문들에서 시간을 아끼게 해 주는데 이번엔 그런 자비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 문제들입니다.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③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아까 위에서도 봤던 31번 문항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그리고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던 42번 문항입니다.

모두 단순히 지문의 근거를 바탕으로, 혹은 지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가 핵심인 문제들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비문학+문학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이 뒤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만 나와도 학생들은 힘들어하는데, 두 문제나 출제되었고 심지어 나머지 영역에서도 지뢰밭이었으니 시험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날카로운 선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더러 있었고, (문학에서도 두 문제 정도가 빡빡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전반적인 시간 부족을 이끌어 낸 것이죠.

시간 부족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모여 시간 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학생들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등급컷을 낮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 남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어렵다는 LEET, 사설 모의고사 등을 모두 풀어 보고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ㅎㅎ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2. 2020학년도 수능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워진 화작, 낯선 문법 문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선지판단력 요구!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시간 부족'이라는 현상은 1등급 컷 84점이라는 초유의 수능 국어 시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단 평가원에서는 내년에는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선지의 길이도 손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에 비춰 보면 국어 영역 난이도가 다소 쉽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평가원 입장에서는 '수능'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학도 '비킬러+킬러'라는 기존의 유형을 유지하는 이상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국어가 쉬워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국어가 쉬워서 입시가 헬게이트가 된다면 (국수영 1등급 커트라인이 각각 96, 100, 97이었던 15학년도 이과 입시에서는 특정 의대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 최하위 항목이었던 '생년월일'에 밀려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동점자가 대거 발생해서 생기는..) 이렇게 어려워서 먹는 욕보다 더 욕을 드실 게 분명하거든요.

평가원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기출, 리트, 사설 모의고사 등으로 중무장한 학생들을 변별하면서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적절하게 어려운 시험'을 낼 수 있을까.

사실 이건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평가원도 이번 시험을 1등급 컷 80점대 중반을 의도하고 출제했을 리는 절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평가원의 발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는 '매우 쉬움~매우 어려움'까지 다시 복불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바로 '매우 어려움'입니다. '최소한' 2019학년도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는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매우 쉬우면 조금 허탈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쉽게 공부했다가 어렵게 출제되면 똑같이 허탈하지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2019학년도 수능의 난이도 정도로 2020학년도 수능이 출제될 것이라 가정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읽어 봅시다.

그래도 기출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기출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기출에서 물어보던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를 물어봤고, 기출의 유형과 다른 유형이 출제되었으니 더 이상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설 문제 '양치기'를 통해서 글 읽는 지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기출을 제대로 씹어 먹은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학생들의 수가 매우 적기도 하고,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래도 대부분 1~2등급을 얻었거든요.

중요한 건, 기출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선지 판단력'은 사실 그동안의 기출에서도 주구장창 강조하던 내용이거든요.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지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지만 '지문의 완벽한 독해'를 바탕으로 답을 골라야 하는 유형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지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지만 '지문의 완벽한 독해'를 바탕으로 답을 골라야 하는 유형 2 (2015학년도 수능 B형)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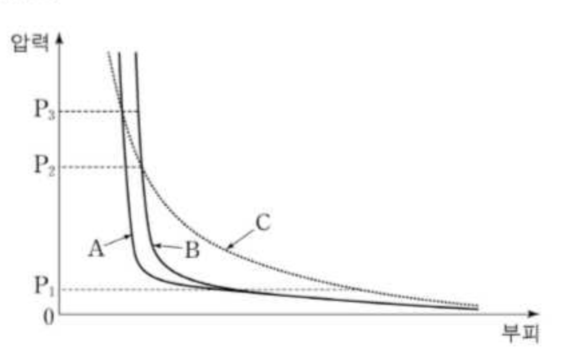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 '필연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 (2016학년도 수능 B형)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 B와 이상 기체 C 각 1몰에 대해, 같은 온도에서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① 압력이 P_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압력이 P_1과 P_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③ 압력이 P_2와 P_3 사이일 때,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④ 압력이 P_3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⑤ 압력을 P_3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 B, 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

- '필연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2 (2013학년도 수능)

기출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가원은 위의 문제들을 참고하여 이번 2019학년도 수능을 출제했을 뿐입니다. 화작문의 역습이라는 변수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물어보는 포인트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화작문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기출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항상 물어보던 걸 물어 봤을 뿐이니까요.

이 외에도 지문 역시 조금 불친절해지기는 했으나 평가원이 '글을 쓰는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문학 역시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출만 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시험은 기출문제'만'으로는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출무용론'을 펼치는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고, 이는 낯선 텍스트를 많이 읽어 보는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구력'이란 본디 '기초 체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문제를 풀 줄도 모르면서 냅다 지구력을 기르겠다고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더 어려운 지문들을 대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러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평가원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기준을 알려 주기도 하고 수능 시험을 넘어 일상에서 글을 읽고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도구거든요.

일단 우리는 기출을 제대로 보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리트, 사관학교, 사설 모의고사 같은 '낯선 지문'을 통해서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신의 성적대가 너무 낮거나 독해력 및 어휘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바로 기출문제를 풀기 보다는 고1, 고2 기출 등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이해해 보려는 공부를 먼저 해보세요. 본격적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기 전에 몸을 움직일 줄은 알아야 하니까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면서 어휘력까지 챙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일단 시도해 주세요.

자 그럼 기출을 바탕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기출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할 것은 ‘각 문장을 보고 해야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출 지문의 문장들은 생각 없이 쓰이지 않습니다. 각 문장들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장의 역할을 파악하면 그 문장을 읽고 해야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해야할 생각’들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며, 선지를 읽고 ‘해야할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국어영역의 전부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래 문장으로 지문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고전 역학에서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지만, 양자 역학에 의해서는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가지 말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 문장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그 화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가능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뒷 내용을 읽으면 훨씬 풍부한 지문 이해가 가능해질 겁니다.

혹은 이런 선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이런 선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즉, 이 선지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라고 했으니 금환 일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각지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지를 묻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금환 일식’, ‘각지름’의 정의를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뭐 당연한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당연한 생각’들을 하지 못해 4%안에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은 게을리한 채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연습만 하고 있으니,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선천적으로’ 국어를 잘한다고 보이는 학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 ‘암묵지’입니다. 만약 이걸 암묵지로 가지지 못했다면 그 내용을 끌어내서 ‘명시지’의 형태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명시지의 형태로 끌어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 내용을 본인의 ‘암묵지’로 만들어 의식하지 않아도 ‘해야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기출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은 쉽습니다. 문장을 읽고 생각해야해! 이것만 가진 채로 혼자 기출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바로 이때, ‘강의’나 ‘교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쓰는 사람들, 즉 ‘국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강의나 교재라면 자신이 하는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강의나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받아 적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제발 그들이 하는 ‘생각’을 분석해 보세요. 그들이 이 문장에서 어떤 생각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재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나 교재를 통해 얻은 ‘생각의 기준’이라는 ‘명시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암묵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기출 공부입니다. 단순히 몇 회독 했고, 누구 강의를 들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럼 기출은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최소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길러졌다고 판단될 때 까지는 보셔야 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당장 아무 기출이나 붙잡고 해설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답의 근거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일관된 사고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되면 기출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다시 기출을 통해 마무리해야겠지만요!

자 정리해 봅시다. 기출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다? 평가원이 항상 똑같은 것을 물어 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에. 그 ‘기초 체력’이란 ‘어떤 문장을 보고 해야할 생각’에 해당하는데, 이를 정리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암묵지’로 만드는 것이 그 기초 체력이다. 이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사고’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별거 아니죠? 내용은 쉬운데, 실천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1등급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거구요. 어렵겠지만, 여기 있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올바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강사가 하는 말을 옮겨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 기르기

이렇게 '기초 체력'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대부분의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집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잘 활용하며 글을 읽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처럼 본인의 사고의 틀을 자유자재로 펼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시험의 경우입니다. 한 지문, 한 문장 단위를 아무리 잘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의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초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글자만 대충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뭐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글이 쏟아져 들어 와도, 시간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즉 '사고의 틀'을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지구력',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기를까요? 이것도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다양한 글들을 접해 보고, 많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얻어야 하는 부분이죠. 어려운 글들에 좌절도 해보고, 그 와중에도 그 글을 본인의 '사고의 틀'을 이용해서 뚫어 보고, 빡빡한 시간 내에 45문제를 본인의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해결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기초 체력'을 충분히 쌓으셨다면 이런 지구력을 기르시러 떠나시면 됩니다. 도구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LEET, 사관학교, PSAT, 사설 모의고사 등등.. 최대한 많은 지문과 문제를 접해 보시고, 거기서 본인의 '사고의 틀'을 이용해서 더 높은 수준까지 계속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국어영역을 정복하는 방법은 본인만의 '사고의 틀'이라는 기초 체력을 닦아 두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지문을 접해보며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국어 영역에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가치와 영향력을 가진 것이 현재 수능 국어 영역이고,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니 공부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나 해야 하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만족할 만큼. 그래도 최소한 하루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 봅시다.

사실 제가 시험을 다 치르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낸 결론이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번 수능에서 유의미한 성적 향상 (백분위 20 이상)을 이뤄낸 학생들은 모두 최소한 '기초 체력'은 확실하게 갖췄다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성적 (백분위 99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을 기르는 훈련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 교재 & 강의 홍보와 2019학년도 수능 '비문학&문학' 파트의 해설지가 실려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 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⑤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②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④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⑤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냐?……'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벙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볼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교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낏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흩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혼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콜콜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에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뾰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단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네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러 놨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②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④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⑤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⑤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딤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A]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 질점 :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구 대칭 : 어떤 물체가 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②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④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29.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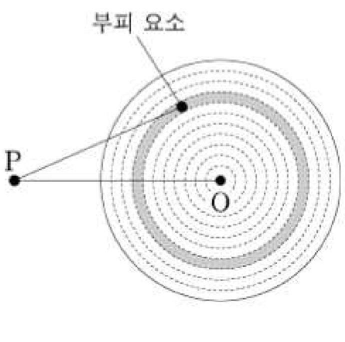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②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④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⑤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⑤ 반지름은 R,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진작(振作)할
② ⓑ : 고안(考案)했다
③ ⓒ : 소지(所持)한
④ ⓓ : 설정(設定)했다
⑤ ⓔ : 시사(示唆)되어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융희(隆熙) 2년!

[A]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B]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C]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D]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E]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뵙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옵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몹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이라. 엄치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중략)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앙(怏怏)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 왈,

"너희 아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촉 : 부탁하여 맡김.
* 패초 :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앙앙하여 :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②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⑤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를 알고 있었다.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

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②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④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⑤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①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⑤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B]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奬)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C]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났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엿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D]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褓)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그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E]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지함 :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 줄기에서 벋어 나간 곁가지.
* 수괴 :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 겉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⑤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16~20]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약속, 그 중에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약속과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공통점은 '의사 표시의 합치', 차이점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가?'라는 것.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 〉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력 부족이 아닌 어휘력 부족일 확률이 큽니다. 매매, 매도, 매수, 청구 등의 어휘를 확실하게 아는지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약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되겠죠.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은 지키든 깨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냥 좀 미안할 뿐이지. 그런데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법률 효과'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일반적인 약속과 가지는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그 뒤에 예시가 나왔다면 그 예시는 당연히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정확히는 본인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급의 어려운 시험을 뚫으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아무튼! 화제는 '계약의 법률효과'와 관련되겠죠?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가지고 가 봅시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자 '법률 행위'의 정의는 자연스레 체크하고 있죠? '의사 표시를 바탕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은 청구권이라는 채권과 이행 의무라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변제'의 정의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라는 개념들의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욕심을 내 보면 이 개념들이 모두 화제라고 지목한 '법률 효과'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생각해내기 굉장히 힘들겠지만, '화제'를 생각하며 읽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갖춰져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뜬금없이 사례가 나옵니다. 서술이 굉장히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화제를 잡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읽었다면 '필연적으로' 이 사례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법률 효과와 관련된 요소들(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 등등)을 더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겠죠. 이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문단이 쉽게 다가옵니다.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이며 법률 행위는 둘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을이 만약 그림을 갑에게 주면? 그렇죠!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 좀 감이 잡히나요? 이렇게 읽기 위해서 화제를 신경 쓰고, 정의를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률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 봅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하네요. 일단 실체법, 절차법 정의 체크하면서 채권의 내용이 이 법들에 갖춰져 있다는 거 체크합시다. 그래서 갑은 을이 그림을 안 주면 채권을 인정받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대요. 강제 집행의 정의는요? 말 그대로네요. 그림 안 주면 국가가 강제로 뺏어서 준다는 거죠. 이 문단에 있는 어휘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문에 사례가 나온 이상 모든 내용을 그 사례에 맞춰서 읽어야겠죠. 일단 을이 그림을 안 주면 갑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여기까지 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네요. 제가 화제의 흐름을 타면서 읽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문단입니다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읽어 봅시다. 을이 그림을 안 줘서 갑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실 을이 그림을 못 준 이유가 자기 실수로 그림을 불태워서 그렇대요. 허허.. 이러면 그림을 못 주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이행 불능'이라고 한답니다. 이러면 갑이 소송을 해도 강제 집행이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럼 어떡하죠? 갑은 호구 잡힌 건가요?라는 생각이 드는게 필연적인데, 평가원은 굳이 '그림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이라는 사례와 관련 없는 내용을 끌고 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난이도 올리려고 억지로 애쓴 느낌..? 물론 제가 부족해서 킹갓평가원느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읽어 봅시다. 만약 이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더 중요해요. 다음 문장을 읽어 보니 이 사례에 딱 맞는 이야기네요. 그림이 불타버렸다는 이행 불능은 을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채무자, 즉 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네요. 정의구현 굿이에요.

그럼 어떻게 책임질건데?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필연적'이겠죠? 이게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독해력을 갖춘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다시 한 번 지금의 채무 불이행이 을의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까지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과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대요. 오 화제인 '법률 효과'네요! 어떤 법률 효과일까요? 변제같은 건 아닐 거고... 바로 '계약 해제권'이었네요. 이렇게 읽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서술이 굉장히 불친절하지만 어쨌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런 독해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계약 해제권'은 을의 의사 따위는 가볍게 씹을 수 있는 '단독 행위'라고 하네요. 계약 해제권과 단독 행위라는 개념도 '법률 효과'라는 화제 아래로 모인다는 것. 이젠 이해되죠?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제 갑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서술 너무 불친절해요. '이러한 계약 해제권을 이용하여~'같은 부연 설명이 있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림 매매 계약과 관련된 채권(갑이 가지게 된 그림의 소유권, 을이 가지게 된 매매 대금의 소유권)과 채무(을이 그림을 인도해야 할 의무, 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겠죠.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는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완전 지문의 사례에 딱 들어맞는 경우네요! 이것도 '이 사례처럼'과 같은 말을 넣어줬다면 이해하기 훨씬 편했겠죠. 불칠전한 서술이 난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지문이네요.

아무튼! 이 사례에서 갑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네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 효과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네요. 결국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효과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이용해 갑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이 생기는 것이네요.

와우 어렵네요. 어렵긴 한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법률 효과'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률 효과들을 지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네요. 어렵고 제가 대단하게만 보이더라도 평가원이 어느새 이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아마 내년에 이 교재가 개정된다면 이 지문은 'P step'에 들어가겠네요. 왜 그런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16. ③

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무효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을이 그림을 불태워 버린 게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즉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계약이 무효라고 했죠? 제가 별로라고 깠던 문장이 이 선지 때문에 나온 것이었네요. 화제의 흐름을 잡고, 그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사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겠네요.

② '강제 집행'의 정의죠? 화제의 흐름에서 꽤나 중요했던 정보였기에 아마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③ '법률 효과의 발생' 이거 완전 화제 그 자체였는데, 이게 발생하려면 법률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었나요? 기억날 리가 없으니까 법률 행위의 정의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정의를 확인하는 게 필연적으로 느껴져야 해요. '의사 표시를 통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의였네요.

그럼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법률 효과 발생을 위해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겠네요. 이것도 아리까리하니까 지문에 나왔던 법률 행위들을 쭉 정리해 봅시다. 변제, 강제 집행, 채무 불이행, 계약 해제... 어 근데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가 아닌 을의 실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나요? 혹시? 하며 '채무 불이행' 부분으로 가 보니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가 있네요. 오케이 그럼 법률 효과는 의사 표시 없이도, 즉 법률 행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네요. 답은 3번.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단 몇 초안에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교재에 썼던 길고 긴 해설들을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1등급을 넘어 만점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선지를 푸는 '필연적 사고과정' 역시 점검해 보시고 다음 선지 봅시다.

④ 절차법 물어보고 있으니 절차법의 정의 봅시다.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이라네요. 그리고 갑이 이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구요. 그럼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네요.

⑤ 이 지문에서 실체법의 정의는 '채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갑이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을이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실체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 5번 선지의 경우 단순히 절차법, 실체법의 정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바탕으로 화제의 흐름을 이해했는지까지 물어 보고 있어요. '채권의 강제적 실현=강제 집행', '청구권=채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단순히 지문에서 1대1 대응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화제의 흐름을 타고 개념의 정의를 신경 쓰면서 읽는 것. 맨 앞 쪽의 P step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활용되고 있었어요.

17. ⑤

- 일단 ㉠과 ㉡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갑시다. ㉠은 그림을 인도해야 할 을의 채무에 해당하고, ㉡은 원상 회복, 즉 을에게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갑의 채권에 해당하네요. 이걸 정리해두고 가셨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은 판 사람이고, 매수인은 산 사람이죠? 채무가 소멸하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이 청구하고 채무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이행해야 죠. 화제를 사례에 맞춰 읽었다면 낚이지 않았을 거예요.

② 의사 표시 = 법률 행위 = 계약! ㉡은 계약, 즉 의사 표시를 통한 것이 아닌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었죠? 역시 화제의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③ ㉠과 ㉡은 다른 상황에서의 법률 효과입니다. ㉠은 법률 행위인 계약에 의한 채무이고, ㉡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니까요. ㉠이 이행된다면 애초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 갑이 ㉡을 가지게 될 일도 없었겠죠. 화제를 집요하게 묻고 있어요! 사실상 2015학년도 수능 신채호 지문 (P step [10~1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화제 잡고 읽기! 항상 잊지 맙시다.

④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고요! 화제의 흐름을 탔으면 둘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⑤ 이건 우리가 미리 찾아둔 정보 그 자체네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겹지만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제발! '화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읍시다.

18. ①

- ㉮의 상황은 을의 실수로 이행 불능 상태가 되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미리 답을 고르고 갑시다. 이 경우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을에게 책임을 물어 갑에게 계약 해제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시켰죠. 그래서 갑은 을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잡고 가 봅시다.

① 오잉 바로 답이네요?? 위의 내용이 답을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닌 화제의 흐름을 타고 읽은 결과 자연스레 해낸 생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②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이 아니라 그림의 소유권이었어요. 돈 받자고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역시 화제와 관련된 사례를 확실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네요.

③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림 사는데 쓴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였습니다. 또 화제의 흐름을 묻고 있네요.

④ 원래 그림은 있었으니 계약을 한 건데, 갑이 돈 주고 나니까 을이 태워 먹은 거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⑤ 을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 바로 '계약 해제권'이었죠.

19. ③

- <보기>부터 정리해 봅시다. 증여와 유언의 정의 체크하면 되겠네요. 증여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문의 매매 계약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엮어서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언은?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고,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과 비슷하네요. 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과 공통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 채로 선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급하다고 바로 뛰어 들어봤자 어차피 답 안 보여요.

① 증여, 유언, 매매 모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였죠? <보기>를 읽으며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② 증여의 정의 역시 일종의 '계약'이므로 법률 행위, 즉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유언은 아예 정의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네요. 촉박한 시험장에서 너무 가혹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③ 변제? 변제가 뭐였죠? 정의 찾아보니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정의를 찾아야 할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는 겁니다. 아무튼 매매는 당연히 변제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는요?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진다는데..??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지면 그 채무를 이행해야 변제가 일어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지문에 있는 용어들의 정의만 제대로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④ 이것도 미리 찾아둔 증여와 매매의 차이점이죠? <보기> 정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⑤ 얘는 증여와 유언의 정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고요.

많이 어려운 지문,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화제와 정의'를 잡고 그 흐름을 타며 글을 읽는 것. 이 본질적인 부분 외에 다른 건 묻지 않고 있어요.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21~26]

자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역시 <보기> 먼저 보고 정복해 봅시다.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서사'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는 내용이네요. 선택, 결합의 정의 슬쩍 보고 지문으로 갑시다. 지문 내용에 큰 도움을 주는 <보기>는 아니었어요.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냐?……'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벙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신랑'과 '이쁜이 어머니', '이쁜이' 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상황을 보아 하니 '이쁜이'가 결혼을 해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네요. 제가 체크한 부분과 여러분이 체크한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포인트에 힘을 주고 글을 읽었다면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쁜이 어머니가 이쁜이를 보내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볼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교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낏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이쁜이네 얘기가 끝난 뒤에는 그 옆집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집도 있고, 서울을 떠나자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집도 있네요. 그리고 중간의 '독자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구나~ 정도 잡은 채로 '서울에서 낙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해 줍시다. 지문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흩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시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콜콜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시나리오 지문에서는 이렇게 간 씬마다 시공간을 제대로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호가 산비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회상으로 넘어 가네요. 피난민 수용소 안에서 아내가 등장합니다. 뭐 그렇게 결혼식 이야기까지 회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산비탈로 돌아 오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71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번엔 '영호'라는 인물이 해방촌의 골목길에서 등장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철호의 방 안으로 들어가네요. 거기엔 철호의 아내가 있고, '혜옥'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보이는 대로 적는 이유는 저도 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가 체크하는 것처럼 포인트들 위주로 읽으면서 가 봅시다.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에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뾰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단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네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러 놨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오?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철호의 집으로 왔더니 이번엔 '민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뭔 인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무튼 민호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철호와 영호가 말다툼을 하고 있네요. 아마 철호는 좀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주의고, 영호는 좀 편법을 쓰더라도 잘 살아보자! 하는 거네요. 뭐 철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영호가 넥타이를 던지는 것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그 '근거'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아마 철호도 영호도 서로 답답해서 그랬겠죠. 사실 둘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75에서 '명숙이'라는 인물이 또 엿듣고 있습니다. '명숙이'라는 인물은 인물을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지 않았다면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던 포인트들은 놓치지 맙시다!

(가)와 (나) 모두 도시에서 그리 잘 자리잡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네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제가 표시한 것처럼 '소설의 기본적인 포인트들'에 집중하면서 읽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21. ①

① (가)에서는 '이쁜이 어머니'의 행위와 혼란스러운 심리 (당황, 피로, 공허..)를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는 철호가 소리를 지르거나 영호가 넥타이를 픽 던지는 행위 등에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인물의 심리 및 행위의 근거를 집요하게 생각했으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어요. 또 (나)의 이 내용들은 모두 '대사 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죠? 미리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얘가 답이네요.

② 일단 (가)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인물과 세계의 갈등이라고 하면 허용이 될 텐데, 딱히 인물들끼리 날을 세우는 장면은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철호와 영호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살펴 보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살펴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③ (가)에서 인물의 회상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형 어미가 많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해결할 만한 사건이 없으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허용하기 힘드네요. (나)는 인물의 회상은 있지만 그 회상을 통해 어떤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으니 역시 허용하기 힘든 선지네요.

④ 희화화? 뭔가 웃기고 싶어서 작정한 그런 부분은 본 적이 없죠? 허용하기 힘듭니다.

⑤ 2번 선지를 설명할 때 (가)에는 인물 간의 갈등, 즉 대결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정답으로 고르기는 힘드네요.

조금 힘들었죠? 서술상 특징 문제를 꽤나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결국 우리가 항상 강조하던 '행위 및 심리의 근거'에서 등장을 했네요. 묻는 건 똑같습니다. 시험장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두뇌만 있으면 돼요.

22. ⑤

① 일단 천변 주민들 사이에는 문제도 없고, 이발소 소년은 그냥 집을 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뿐 중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② 그냥 개소리죠. 타 지역 주민들은 나온 적도 없어요.

③ 이것도 너무 개소리죠. 애초에 '이발소 소년'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④ 얘는 그냥 보기만 한다니까요! 분석할 짬이 안 돼요.

⑤ 이게 정답이죠. 이발소 소년은 그냥 예전에 팔린 집을 나서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만 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23. ②

① 인물들의 행선지가 '강화'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네요.

② 오잉 오히려 독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너무 쉬운 문제네요.

③ 독자 언급, 서술자 개입 모두 '지문 분석' 때 미리 말한 것이죠?

④ '점룡이 어머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으니 맞는 선지네요.

⑤ '독자는 ~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24. ②

① (가)의 '골목'에서는 '이쁜이'와 헤어져서 슬픈 심리를 보여준 '이쁜이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고, (나)의 '골목길'에서는 영호가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 수고했소.'라고 했으니 열악하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죠.

② (나)에서 명숙이가 철호와 영호의 갈등 상황을 엿듣는 모습은 허용이 가능한데, (가)에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 없다고 했어요! 소설의 본질인 '갈등'(몰라도 돼요!)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본 시험이었네요.

③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선지 그대로 허용이 가능하네요.

④ 이것도..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것을 불우하다고 보면 딱히 틀린 거 없네요.

⑤ 서울에서 낙향하고, 취직을 거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현실에 잘 적응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쉽게 허용이 되네요.

25. ⑤

① 그러네요. 회상 장면에서 굳이 철호의 목소리를 넣은 이유는 그것이 철호의 회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②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이게 연민이 아니라고 하기엔 어렵죠?

③ 여학교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아내와 신부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죠.

④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70으로 돌아가 보니 철호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시가지는 '황홀에 묻힌' 것으로 묘사되었네요.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소심함?? 영호는 오히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소심함'이라는 성격은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네요.

26. ⑤

- 제가 꼽는 2019 수능 문학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독해를 못 했을 겁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지구력은 어떤 스킬이나 원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깨질 듯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본인의 한계를 경신하는 공부를 해 보세요. 해설도 필연적으로 길어질 겁니다. 잘 따라와 봅시다.

① ㉠의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얼마나 많을 까요? 아마 자동차의 문이 닫히고, 운전수가 기침을 하고, 한 승객을 방귀를 뀌고..(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그 중에서 '이쁜이 어머니'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만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침이나 방귀 이런 건 이쁜이 어머니 입장에선 신경도 안 쓰일 사건이 잖아요.

또한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 (자동차 안, 철호의 방 안)을 '영호'라는 동일한 인물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네요. 허용할 수 있겠어요.

② ㉡의 '신전 집'과 관련된 일은 이쁜이 어머니가 이쁜이를 배웅하는 '한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이라고 했으니 같은 날을 허용할 수 있고, 둘을 결합한다고 하면 딱히 틀린 게 없네요.

또한 #73과 #74는 '철호와 영호'라는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결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구요.

③ ㉡에 대한 이야기는 1번 선지의 ㉠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역시 '신전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훨씬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몇 장면만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달프게도'라는 표현을 썼으니 감정 서술까지 허용이 되겠구요.

또한 #73~#75의 '철호와 영호'의 대화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대화를 매개로 그 공간들이 결합된다고 할 수 있겠죠? 2번 선지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민호', '명숙이'라는 다른 인물들까지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숨 차네요..

④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꺼내온 것에 불과한 선지네요. ㉠과 ㉡은 '한편'을 통해 같은 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인물들의 목소리로 장면을 연결하는 #74, #75와는 달리 서술자의 서술을 이용하고 있네요.

⑤ 일단 ㉢이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특징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건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집 → 술집 → 하숙옥'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하나하나 분할해서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75에서 '시간의 흐름 분할'이 나타나나요? 만약 시간이 흘렀다면 시공간을 무조건 체크하는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죠.

일단 틀렸고, ㉢은 다른 공간이 등장하지 않지만 #75는 철호의 방 안과 철호의 집 골목을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통해 연결한다는 거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뒷 부분은 맞네요. 결국 묻고 싶은 건 '시공간의 체크'였나 봐요.

원래 이런 문제는 (가) 단독 선지 1개, (나) 단독 선지 1개, (가)(나) 공통 선지 3개 이런 식으로 한 지문만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을 줘서 시간을 아끼게 함으로써 문제 풀이에 배려를 해 주는데, 이 문제는 자비가 없었어요.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초유의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4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평가원이 그동안 묻지 않던 뭐 대단한 개념이나 해석 능력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평가원은 그저 그동안 항상 물어보던 내용들, '인물 관계(갈등 관계), 시공간, 인물의 심리' 같은 것들만 물어 보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글을 읽어내는 지구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문의 길이, 아니 선지의 길이까지 말도 안 되게 길어지면서 그 긴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건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스스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경험들을 쌓아서 완성합시다. 할 수 있어요!

[27~32]

<u>**16세기 전반**</u>에 서양에서 <u>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u>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u>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u>.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u>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u>.

'16세기 전반'을 보면 자연스레 체크가 되어야겠죠? 시간순 서술일 확률이 크니까 시간에 관한 표현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야겠네요. 16세기 전반에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는 태양 중심설, 경험주의의 확산,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한 형이상학의 변화 정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전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16세기 전반에 천문학 분야에서 뭔가 이성적인 것들? 경험주의, 수리 과학 같은 것들이 뜨기 시작했구나~ 정도의 감은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파되니까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양의 우주론을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읽기 시작해야겠네요! 사실 이 지문은 지문 자체를 어려워했으면 안 돼요. 화제 잡기도 어렵지 않고, 구조도 쉽게 파악되니까요.

자 그럼 일단 서양의 우주론을 설명해 주겠죠?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u>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u> **코페르니쿠스**는 <u>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u>.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u>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u>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u>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u>. 그러자 <u>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u>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u>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u>.

-> 행성과 태양의 거리 ↑ → 공전 주기 ↑

아니나 다를까 서양의 천문학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 주네요. 먼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사람이 나오면? 주장을 체크하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똑같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하려고 했고,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한 번쯤 곱씹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함에 집중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고 해요.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을 강조했으니까요! 바로 다음에서 이 얘기를 해 주고, 이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적은 수의 행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단순성'을 충족했다고 하네요. 비례 / 증감 관계 하나 나왔으니 일단 메모해두고, 코페르니쿠스는 아&프와 달리 태양 중심설, 단순성을 강조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대요. 주장이 있다면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밑에 나오네요. 이걸 체크하며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단순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거부했다! 이게 여기까지의 내용이네요. 계속 읽어 봅시다.

>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 이젠 시간이 흘러 '16세기 후반'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면 변화한 양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로 단순성을 주장했고 그건 대차게 까였는데, 그 뒤론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브라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모두를 충족시키려고 했네요. 그래서 저런 모형을 만들었대요. 왜 저게 둘 다 충족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네요.

그런데 케플러라는 사람은 다른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있었대요. 다른 사람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인 것을 체크해야겠죠?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와 조금은 다르게 주장한 브라헤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를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도 브라헤의 관측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변화 양상이죠. 코페르니쿠스 시절만 해도 여전히 주장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인데 이게 여러 법칙으로 인해 깨져 버렸네요. 이런게 출제 포인트가 되니 항상 신경쓰도록 합시다.

>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
> **-> 질점 질량들의 곱↑, 거리^2↓ → 만유인력↑**

자 이번엔 '17세기 후반'입니다. 이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까요? 바로 '뉴턴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되겠죠. 지금 지문의 흐름이 '태양 중심설 제기 -> 비판 -> 운동 법칙 같은 팩트로 비판 무마 -> 태양 중심설 역학적으로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구조'를 신경 쓰며 읽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태양 중심설을 정당화했는지 봅시다. 이를 위해 나온 것이 '만유인력'이라는데, 만유인력의 정의와 비례 / 증감 관계만 체크해 봅시다. 물리에 익숙한 학생들은 수월하게 읽히겠지만 저같은 문과생들에겐 ??만 남는 문장일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정리하자.

'질점이라는 놈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의 정의이고, 얘들은 질점 질량간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이거 메모해두고 계속 읽어 보니 뭐라뭐라합니다. 그니까 한 천체가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이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는 거네요. 이걸 보면서 '2014학년도 9월 B형 각운동량' 지문이 떠올랐으면 굿입니다. (I step 6. 비례 / 증감 관계의 마법 [1~2] 지문) 거기서 나온 '질량 요소' 개념과 유사하네요.

어쨌든 만유인력은 이런 특징이 있고, 지구와 태양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ㅎㅎ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과'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뭐 뉴턴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유인력'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3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지문을 읽을 때 더욱 중요한 것은 화제와 구조니까요. 지문의 화제인 '서양의 천문학', 그리고 구조인 '시간순 서술'에 맞게 변화 양상을 체크하고 있었죠?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은 결국 '뉴턴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라는 걸 인지한 채로 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시간과 정확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 드디어 글쓴이가 정말 말 하고 싶던 중국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전반을 넘어 17세기 후반까지 서양의 천문학이 전개된 양상을 이해했어요. 중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644년 청 왕조가 '시헌력'이라는 것을 공식 채택하면서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시헌력의 정의들은 자연스레 체크가 되고 있죠?) 중국 지식인들은 불만족스러웠대요. 이게 중국의 지적 유산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은 참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를 위해 중국 학자들은 중국 전통과 서양 과학을 연결하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이게 첫 문단에서 말했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에서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과 서양 천문학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가 봅시다!

>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먼저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라는 사람들이 나왔네요. 이들의 '주장'도 체크가 되어야겠죠? 이들은 중국 고대 문헌은 부정적으로 보고, '성리학적 기론 + 실증적인 서양 과학 재해석'을 통해 독창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네요. 브라헤의 영향을 받고 광학 이론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이번엔 17세기 후반으로 왔습니다. 왕석천, 매문정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경험적 추론', '수학적 계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웅명우 등을 비판합니다.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중국 고전에 다 있는데 이상한 성리학 같은 것만 몰두했다고 말이죠. 이것도 전부 이들의 '주장'이니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고 있겠죠? 매문정은 또 뭔가를 주장하면서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했답니다. 지문의 흐름 잡아 주셔야 해요. '서양 과학 + 성리학' -> '서양 과학 + 중국 고전'!

>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매문정의 입장(친절하게 다시 요약까지 해줬네요. 첫 문장이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라는 게 느껴지시죠?)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식입장이 되었다. 이런 '변화'에 초점을 맞춰 놓고, '사고전서'라는 총서에 이 변화 양상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라는 내용까지 잡아 두면 끝나네요.

중간에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만 해냈다면 '서양의 천문학 변화 양상' -> '그걸 받아들인 중국의 변화 양상'이라는 지문의 흐름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문을 읽어 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문 난이도'만 생각하면 201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쉬운 비문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문제에는 이 '변화 양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27. ②

①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 (코페르니쿠스, 브라헤, 케플러 등등)과 지구 중심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모두 설명되었죠?

② 아니 저 예측은 우리가 1문단에 했던 '화제 생각' 그 자체네요. 화제인데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중국의 우주론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기도 했고요. 생소한 유형의 문제였지만 '화제'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익숙하게 느껴져야 할 문제였네요.

③ 1번 선지 해설로 대체할게요.

④ 역시 화제 그 자체네요.

⑤ 그런 인물은 나온 적이 없네요. 브라헤와 케플러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브라헤와 케플러가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요.

28. ①

①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 중국의 변화 양상 체크했을 때 '경험적 추론'에 관심가진 애들 나오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돌아가 봐요. 왕석천, 매문정은 경험적 추론에 관심가졌다고 했어요. 바로 정답이네요. 변화 양상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었다면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 안 나도 경험적 추론에 관심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건 생각해냈을 거예요.

② 중국의 18세기를 묻고 있네요. 18세기 때는 중국이 매문정의 입장을 공식 채택했을 때네요. 매문정의 주장이 중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것이니 맞는 선지네요.

③ 청 왕조가 시헌력을 공식 채택했고, 중국이 매문정의 입장을 공식 채택했으니 맞는 선지네요. 이건 기억이 났어야 해요. '변화 양상'에 집중했다면 말이죠.

④ 서양 천문학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일어난 '변화의 양상'이 바로 '자국의 우주론 전통 재인식'이죠? 중국의 고대 문헌에도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매문정의 주장이었잖아요.

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망해버렸다는 '변화 양상'이, 중국에서는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을 비판했다는 '변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역시 구조와 관련된 아름다운 문제네요.

29. ④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묻고 있네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어요.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을 묻고 있는데.. 오잉 저 비례 / 증감 관계와 단순성은 코페르니쿠스의 특징이었죠?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서 확인하면 돼요!

③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태양 중심설, 즉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에 비해 단순한 것도 맞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까였죠? 양립 가능한데 까일 일이 없으니 틀린 선지네요.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 그 사람의 주장 말고는 낼 게 없어요.

④ 일단 이 내용 브라헤의 주장 맞나요? 네 그 자체네요. 그리고 브라헤 주장의 핵심은 '코페르니쿠스 인정하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한다.'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맞네요.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것이 케플러는 맞죠? 케플러는 신플라톤주의와 경험주의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고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관측치를 이용한 것이죠. 신플라톤주의와 경험주의는 독립적인 요소이지, 연관된 것이 아니었어요.

30. ①

①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웅명우, 방이지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주장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네요. 문제가 다 똑같죠?

② 매문정의 주장을 묻고 있네요. 이제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③ 또 방이지의 주장.. 이 정도면 지겹네요.

④ 이번엔 사고전서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기억을 하면 좋은 거지만, 기억이 안 나도 돼요.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⑤ 이건 지문의 화제네요. 이건 어디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다 읽고 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제를 잡고, 구조를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31. ②

- 언론에서 아주 난리를 쳤던 '그' 문제입니다. <보기>와 선지가 지나치게 길고 (문제 하나에 반 페이지가 넘어 가죠?) 마치 '만유인력'에 대해 모르면 풀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극악이었던 것은 단 한 문제도 쉬어갈 틈이 없었던 국어 시험지 자체 때문이지, 이 문제 하나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때문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풀이를 포기하게 된 것이지 너무 어려워서 풀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후자의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결론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필연적 문제풀이' 연습 많이 했잖아요. 한 번 같이 해 봅시다. 먼저 <보기>를 분석해야겠죠?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A] 부분에서 천체도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무튼 이런 부피 요소들은 질점으로 볼 수 있고, '부피×밀도=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개소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결론만 읽어 봅시다.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과 그 구와 질량이 같은 다른 질점이 자신의 중심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대요.

네.... 솔직히 이걸 현장에서 바로 이해하는 건 물리를 배운 학생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못 했구요. 그냥 핵심은 부피 요소들의 총합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 즉 구 전체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의 중심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구의 중심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는 거죠. 이게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이라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만 이 <보기>의 내용만 인지합시다. 하나의 구가 한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의 중심이 그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자 이 정보를 챙긴 후에 선지 판단을 해 봅시다. 실전에서 풀지 못 해도 돼요. 어차피 시간 없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 필연적으로다가 풀어 보자는 겁니다.

① 행성의 밀도가 균질한데 그 중 하나의 구 껍질의 반지름이 커지면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네요. 그렇다면 반지름과 만유인력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하지만 우리의 메모에는 반지름과 만유인력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추가적으로 준 만유인력과 관련된 비례 / 증감 관계도 없었으니 메모된 비례 / 증감 관계를 봐야겠네요. '질점 질량들의 곱↑, 거리^2↓ → 만유인력↑'이었습니다.

일단 반지름과 질량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커지면 질량이 커지지는 않지만, 부피가 커지겠죠. (이 정도는 평가원이 배경지식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ㅜㅜ 또 부력 / 항력 지문에서 같은 논리가 쓰인 문제가 나왔었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부피×밀도=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밀도가 균질할 때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커져야겠네요. 이해가 안 된다면 부피, 밀도, 질량에 어떤 수를 넣어 보세요. (10×10=100 -> 20×10=200) 수포자는 문제 풀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반지름이 커진다=질량이 커진다로 끌고 왔습니다. 질량의 곱과 만유인력은 비례한다고 했으니,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지겠네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기는 한데, 반지름과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구 껍질의 반지름이 커지면? 구 껍질과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겠네요! 거리와 만유인력은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만유인력은 자연스레 커질 것이고요.

물론 이 풀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질량 중심' 이론에 위배되어서 (반지름이 작든 크든 질점을 당기는 건 그 중심이니 질점까지의 거리는 같죠.) 오류가 있는 해설이지만, 이렇게 '필연적인 풀이'를 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지문에서 준 게 질량과 거리와의 관계이고 선지에서 '반지름'을 묻고 있으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질량, 거리, 반지름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것!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② <u>오히려 정답은 좀 쉽게 나왔어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이 같을 때,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냐는 겁니다. 서로의 중심에서 당기니까 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질량의 곱만 신경 쓰면 되네요. 일단 지문에서도, 우리의 상식에서도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크다고 했습니다.</u>

<u>그럼 '태양의 질량×m > 지구의 질량×m'이므로 '지구 중심 - 태양의 만유인력 > 태양 중심 - 지구의 만유인력'이겠죠. 결국 핵심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례 / 증감 관계를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정독하고 '사고 과정'을 익혀 주세요</u>.

③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Mm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와 반비례하겠죠.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것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진 질점'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간의 관계를 찾아야겠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기> 마지막 부분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보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의 구가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중심에서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둘의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일 것이고, 질량이 M, m으로 같은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도 같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1등급 안 나옵니다. 이 '사고과정'을 이해해 주세요. 결국 만유인력과 질량 / 거리의 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④ 이건 좀 쉽죠? 지문과 <보기>에서 주구장창 말했던 '한 천체의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의 총합 = 그 천체의 만유인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구와 태양 간의 만유인력은 지구와 태양의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의 합과 같겠죠.

⑤ 자 조금 헷갈립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구의 반지름이 R이고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구슬까지의 만유인력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구와 구슬간의 만유인력은 둘의 중심 간의 만유인력과 같다고 했죠? 그럼 둘의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인 Mm과 비례하고, 중심 간의 거리인 R+h와 반비례하겠네요. 결국 질량이 M,m이고 거리가 R+h인 두 질점의 만유인력은 지구와 구슬 간의 만유인력과 같겠네요!!

와 어렵다...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이걸 2019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게 물리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라면 가능할까 싶지만 (부력 / 항력 문제 - A step 1. 원칙 강화 훈련 -1의 21번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인데 당시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했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할 뿐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되, 이렇게 한 큐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한 문제를 잡고 있다가 다른 문제를 풀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시 한 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비례 / 증감 관계의 메모, <보기>의 분석, 선지에서 묻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필연적인 문제풀이'. 이것 외에 평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렵다면 R step과 A step의 21번 문제를 다시 복습해 보세요. 제재는 다르지만 같은 논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가원이 묻는 포인트는 일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재화된 내용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하는 것. 이게 국어 영역을 정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하기 싫더라도 끝까지 이겨내 주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33~35]

이번에도 <보기> 먼저 보고 갑시다!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수의 시인 (나)에서는 '상호 텍스트성'이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 생동감, 그리움 등의 형상화 같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구나.. 하고 작품으로 가 봅시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융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화자 - 상황 : 융희 2년, 새벽, 화자 태어남
- 반응 : 슬픔(?)

뭐 별 내용 아니네요. '융희 2년'에 화자가 태어났는데 그 상황에 대한 묘사네요. 딱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화자 - 상황 : 샤갈의 마을, 삼월, 밤
- 반응 : ??

이번 시도 정말 상황과 반응을 잡기가 힘드네요. 이런 시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오고, 정맥은 떨고, 눈은 지붕, 굴뚝을 덮고, 밤에 아낙들은 불을 지핀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지에서 다 해석해주잖아요!

33. ①

① (가)에서는 '융희 2년', (나)에서는 '삼월'..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상황'만 잡으니까 답 나오네요. 쉽죠?

② (가)는 허용이 되는데, (나)에는 눈을 씻고 쳐다 봐도 '과거 시제'가 없네요.

③ (가)에서는 슬프다는 반응이 분명히 등장을 했어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반응 없이 '샤갈의 마을'을 구경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는 (가)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나)에는 허용하기 힘들죠? (나)는 애초에 반응이 딱히 드러나지 않아요. 또한 (가)든 (나)든 '비극적 상황'도 허용하기 힘드네요.

⑤ (가)의 '석류꽃'이 피를 뱉는다거나 (나)의 '눈'이 샤갈의 마을을 덮는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은 너무 개소리네요.

34. ④

①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 포대기'같다고 했으니 청각의 시각화를 허용할 수 있고, 까마귀나 부엉이가 우는 것으로 보아 '음산한 상황'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1연에서 '융희 2년'은 어두운 시절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와 다르게 계절은 밝게 묘사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어요.

③ '~한 누구는 ~ 했고, ~한 누구는 ~했다.'라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했고, 화자의 출생을 앞둔 것 맞으니 허용할 수 있죠.

④ 출생에 대한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화자나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상황만이 제시되고 있고 반응은 드러나지 않네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⑤ '곡성'은 사람이 죽어서 내는 소리고, '돌메'는 '명이나 길라 하며' 지어준 이름이죠. 죽는 것과 명이 긴 것. 충분히 상반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35. ③

① <보기>에서 그렇다고 했죠...

② 삼월, 봄, 새로 돋은 정맥 (봄의 생명력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등의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라고 하면 큰일 나나요? 괜찮죠.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이 공감각적 이미지라구요? 이들에게서 시각적 이미지 외에 또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나요. 뜬금 없이 문학 개념어를 묻고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의 뜻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네요.

④ <보기>에서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했고, 이 '올리브빛'이 '겨울 열매들'을 물들인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어요.

⑤ '아낙'과 '아궁이'는 화자의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샤갈의 그림에서 얻은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했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이번 지문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준비만 되어 있었고, 상황과 반응조차 잡히지 않는 시는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만 잡혀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네요.

[36~38]

우리 교재에서도 몇 번 다뤘던 '임장군전' 혹은 '임경업전'이네요. 역시 <보기> 먼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딱히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바로 지문 읽읍시다.

>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뵙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 경업이 돈수사죄 왈,
>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옵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 "이 몹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 하시고,
>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 하시다.

임경업전 (본교재 114p)의 내용은 얼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습을 했다면! 일단 이 내용은 자점이 경업을 모함해서 가둔 상태네요. 경업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는데, '전옥 관원'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자점의 모함을 알게 되고 몸을 날려 옥문을 깨치고(....) 임금님에게 갑니다.

상황을 알 리 없는 임금님은 경업을 그저 반기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점의 나쁜 짓을 알게 된 임금님은 화나서 자점을 가두라고 합니다. 정의구현이네요!

>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 시자가 대왈,
>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이라. 엄치하소서."
>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엥 그런데 경업이 나가는데 자점이 경업을 납치해버립니다. 개막장이네요; 대군이 이 사실에 관해 의심하게 되고 임금에게도 물어 보고 하는데, 경업이 죽어 버렸대요.. 허걱.. [B] 부분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는 거 정도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앙(怏怏)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옵소서."
>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 하시고,
>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 왈,
> "너희 아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 하시다.
>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뭐 결국엔 이 사실을 우의정 이시백이 알게 되고, 꿈에서 경업이 나와서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면서 자점에게 정의구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경업이 죽는 건 좀 충격적인 결말이네요. 아무튼 내용은 매우 쉬웠어요. 문제 풀어 봅시다.

36. ①

① 지략 대결? 이런 건 나온 적도 없죠. 그냥 무식하게 문 부수고 납치해서 죽이고 그러고 있어요. 경업이 꿈에 나타났으니 초월적 능력은 어느 정도 허용되겠지만, 맞는 선지는 아니네요.

②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③ '전옥 관원'의 대사, '이시백'의 대사 등을 통해 허용할 수 있죠.

④ 네.. 이것도 당연하죠.

⑤ 경업 vs 자점이라는 완벽한 대립 구도를 통해 흥미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37. ⑤

① 상세한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예요. 경업은 옥에 갇힌 '후' '전옥 관원'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에게 물도 안 준거지 어디 감히 상(임금)을 만나나요.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해서 '시자'라는 인물에게 물었죠. 경업은 이미 납치된 상태였어요.

④ 이시백은 자점이 경업을 모함한 사실을 상에게 알려 준 것이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준게 아니죠. 애초에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구요.

⑤ 상은 꿈에 경업이 나온 뒤 엉엉 울고 자점을 국문해서 자복을 받아 냈어요. 말 그대로 '내용일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능 문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문제라고 했어요.

38. ④

① 경업이 죽는 부분을 읽은 식자층은 ㉠에서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럽다'고 했어요. 부정적 평가는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② '가히 아프고 애석하네'는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③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고 했으니 운명론적 태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엥? 자점한테 연민을 느낀다구요? ㉣에서 말하는 '가엾지 아니리오'의 대상은 당연히 '경업'이겠죠.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⑤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 = '널리 알려지기를 바람' 괜찮죠?

[39~42]

>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자 '모순 관계'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정합설 지문'에서도 나왔었는데 동시에 참도 거짓도 불가능한 관계라고 합니다. 모순 자체는 우리도 익숙한 개념이죠? 계속 읽어 보니 그 중에서도 동시에 '참'이 불가능한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순 관계, 무모순율의 정의를 잡으면서 읽고 있는데 또 예시를 들어 주네요.

일단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가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쉽습니다.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하니까요. 철학자들은 이런 두 사례를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P와 ~P가 모두 참인 세계, 즉 무모순율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그럴 수도 있으니 존재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지문의 화제를 생각해 봅시다. P와 ~P에 대해서 왜 이야기 했을까요? 그리고 다보탑 얘기는 왜 한 걸까요? 그렇죠. '가능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앞에서 가끔 언급했던 'A를 설명하기 위해 B를 알아보자'와 비슷한 구성이네요. 가능세계라는 A를 위해서 모순, 다보탑이라는 B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화제는? 그렇죠. 가능세계! 가능세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화제를 잡아야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가능세계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가능세계를 가지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능하다'와 '필연적이다'의 정의 살포시 체크해 주시고, 그걸 예시를 통해 '재진술'하고 있네요. 왜 평가원은 굳이 재진술 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해하라고!! 화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정보니까 제발 확실하게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능하다 =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필연적이다 =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우리한테 각인시키려는 걸까요? 계속 봅시다.

>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필연적이다로 뭘 하려는 거 같았는데.. 갑자기 또 일상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냥 가능세계의 다양한 역할? 을 말해 주고 싶었나 봐요. 그렇구나.. 그럼 가능세계는 또 어떻게 일상적 표현들을 설명해 줄까요?

먼저 상황부터 이해해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이죠. (기차가 아니라 보통 지하철, 버스겠지만) 그리고 변명까지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 명제에서 A가 거짓이면 B가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요. 왜 그렇죠? 몰라요.. 안 가르쳐 주네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평가원이 굳이 설명 안 하면 굳이 억지로 지문 밖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만약 A이면 B이다."에서 A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다! 라고 정리합시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서술의 불친절함이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높이고 비판받게 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만약 A이면 B이다."라고는 하지만 "만약 A이면 ~B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능세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서 여전히 지각을 한 가능세계를 떠올려 보자고 합니다. 지문에서 말하듯이 고장 같은 상황 말이죠. 이런 '가능세계'도 존재는 하지만 기차를 탔을 때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도 지각해 버리는 확률보다는 기차 탔을 때 지각 안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를 일반화하면 마지막 밑줄처럼 "A->B"인 가능세계가 "A->~B"인 가능세계보다 현실과의 유사성이 높다면 현실세계에서 나는 "A->B"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조금 어렵나요? 이 지문이 만약 비문학 첫 지문이었다면 학생들이 조금은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읽다 보니 날림으로 읽게 되고 ??? 만 남게 된 거죠.

>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는 또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대요.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이 그것인데, 정의만 확실하게 체크해 주면 별 것 아닌 문단이죠? 굳이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성질들이 있고, 그들의 정의는 저런 거구나~ 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네.. 가능세계는 쩐다고 하면서 끝나고 있네요. 이거 가지고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39. ①

① 배중률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배중률은 "P이거나 ~P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가능세계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배중률은 당연히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겠네요. 쉽네요.

② '가능한 명제'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P는 가능하다'의 정의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와 다른 말이죠? 다 정의를 묻는 문제였어요.

③ '필연적인 명제'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기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없겠네요.

④ 무모순율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눈만 있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⑤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가 거짓일 때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A가 참이면 성립하지 않으니 틀린 선지네요. '가능세계의 역할'이라는 화제를 잡고 읽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고, 내용을 기억 못 하더라도 '위치'를 기억해서 돌아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40. ②

① 다보탑이 경주에 있지 않고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했죠. (1문단 마지막 줄) 이걸 보지 못했더라도 가능세계의 정의를 이해했다면 바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만약 Q이면 Q이다.", 즉 '필연적인 명제'의 예시네요. 이러한 필연적인 명제의 정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이니 이게 성립하는 가능세계에서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개념의 정의를 차분하게 따라가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네요.

③ 일단 '모순 관계'의 정의부터 생각해야 겠네요. '동시에 참도 거짓도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럼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으면서 개성에 있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바로 지금 상황이잖아요.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개성에 있지 않고 경주에 있으니까요. 다 개념의 정의로 풀고 있다는 걸 느껴 보세요.

④ 일단 ㉡이 거짓이라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었을 리는 없다는 거네요. 그럼 다보탑이 개성에 존재하는 가능세계는 없네요. 개성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⑤ 우리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이죠? 경주에 있으면서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기에 둘 다 참이 가능한 것이네요.

41. ③

③ 이건 다른 선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밑줄 문제는 '밑줄 근처'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밑줄 근처의 핵심은 '기차를 탄 가능세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과의 유사성을 따진다는 것'이네요. 이 둘을 모두 충족하는 게 3번 선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헛소리네요. 밑줄 문제 풀이의 기본 원칙을 체크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42. ②

- 이의제기가 걸려서 많은 논쟁이 오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논쟁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시험장에서 '지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분석해 봅시다. '반대 관계'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이 '반대 관계'의 정의는 동시에 참은 안 되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한 관계라고 해요.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순과 차이점을 가지네요. 이거 잡고 풀어 봅시다.

① '일관성'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 일관성의 정의를 봅시다.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가 없다.'라고 하네요. 근데 절반은 쓰고 절반은 쓰지 않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상황이기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일관성'에 따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포괄성'으로 조져야 할 것입니다. 역시 개념의 정의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② '포괄성'의 정의를 봅시다. '가능하면 가능세계가 있다!'네요. 그리고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의 예시로 <보기>에서 제시한 것이네요. 이들은 반대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가 참인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가 참이거나 후자가 참인 것이 가능하므로 포괄성에 의해 그러한 가능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개념의 정의만 잡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③ '완결성'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P이거나 ~P이다." 즉 P나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의 개념을 담고 있는 개념이네요. 그럼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P와 ~P의 관계, 즉 '모순 관계'인지를 생각해야겠네요. 모순 관계의 정의를 보면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면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죠? 그럼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고 모순 관계가 아니므로 완결성을 가져 와서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완결성은 P와 ~P, 즉 '모순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P와 ~P가 모순 관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이걸 해내려면 모순, 무모순율 같은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했어야 했구요!

이 선지는 이의제기가 제기되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선지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이의제기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 했고,(지문 외의 배경지식을 끌어 와야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구구절절 설명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제 사고과정입니다. 완결성의 정의를 토대로 여기서 말하는 두 명제가 모순 관계인지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두 명제가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을 잘 살펴 보세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런 선지가 잘 지워지지 않으면 쿨하게 넘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 확실한 정답 선지를 찾으면 뒷 선지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손가락 걸기'에는 부정적이지만, 선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안 지워지는 상황, 하지만 답은 확실하게 고른 상황이라면 쿨하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45개의 정답 선지를 고르는 것이 목표지 225개의 선지들에 모두 해설을 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④ 일단 '포괄성'의 정의는 '가능하면 가능세계 존재!'이고, 독립성의 정의는 '서로 다른 가능세계들과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그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네요! 아니 아무도 안 쓴다면서 왜 한 명은 써요. 그럼 애초에 가능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것이니 포괄성을 끌어 오면 안 되겠네요.

⑤ 완결성은 배중률과 관련된 개념, 독립성은 서로 다른 가능세계들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는 것부터 틀렸죠? <보기>에서 이런 '반대 관계'는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반대 관계의 정의를 묻는 선지였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비문학 문제들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사실 비문학 지문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31번 문제는 좀 심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실 점은, 국어 영역은 한 지문씩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어려운 지문들'이 3개 동시에 몰려 있으면, 심지어 화작문과 문학에서도 빡빡하게 출제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고 사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답을 골라야 합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한 지문 한 지문 분석해 내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쾌감을 느끼지는 마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고 길게 쓰는 해설의 내용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구현해 낼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방법은 '피나는 반복 연습,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고력 향상 노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이걸 가슴 속으로 느끼지 못 하면 성적이 오르기 힘들 거예요. 꼭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 해설이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해설지는 앞으로 1년 동안 끼고 다니시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답이 왜 그것인지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고과정의 '필연성'을 느끼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43~45]

마지막 지문이네요! <보기> 먼저 봅시다.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의 '필담 장면'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읽어 봅시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화자 - 상황 : 배 방 안, 자연 구경(기상 악화, 해돋이)
- 반응 : 심란 → 고생 → 자연 이쁨

배 방에 누워 있으니 '심란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 기상 악화로 좀 고생하고 자연을 묘사하면서 '장관', '이런 구경 또 없다.'라는 반응도 보여 주고 있네요. 여기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자연 이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奬)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났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엿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褓)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그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화제 - 상황 : 필담
- 반응 : 칭찬 → 웃음, 부끄러움 / 글 값 → 놀라움, 어이 없음, 감격

이게 <보기>에서 말한 '필담 장면'인가 보네요! '전승산'이라는 사람이랑 서로 칭찬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글 값'을 준다고 하니 놀라고 감격하나 돌려 주고.. 뭐 그러고 놀고 있네요. 지문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던 대로, '상황과 반응'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 봅시다.

43. ⑤

① 배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 그리고 화자의 행동이 나타났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필담 장면에서도 글을 주고 받고 '글 값'을 받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구요.

② 배 안에서 자빠지고 엎어지는 등 '하강 이미지'도 있고, 해가 돋는다는 '상승 이미지'도 있네요. 허용할 수 있어요.

③ '크나큰 만곡주가 ~ 굽어 있고'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이 불려지고, 굽어 있고, 배부르는 등 당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니 맞는 선지네요.

④ '태산 같은 성난 물결'. 끝.

⑤ 동물의 역동성은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부분에서 나오는 데,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기상 악화로 죽을 위기인데 무슨 긍정적 분위기예요.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꾼 건 동물의 역동성이 아니라 '해돋이'였죠.

44. ③

① ㉠은 자연에 대한, ㉡은 글에 대한 '감탄'을 나타낼 뿐이죠? '의지'라는 반응은 허용하기 힘듭니다.

② 실체를 은폐?? 너무 뜬금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선지죠.

③ 에 1번 선지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있네요. 얘는 허용할 수 있죠.

④ ㉡이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인 것은 맞는데, ㉠의 상황에서는 화자 혼자 있어요. 타인의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⑤ 만족은 허용이 되는데, '아쉬움'이라는 반응은 허용이 힘드네요. 심지어 ㉡은 '화자의 반응'도 아니구요.

45. ④

① '전승산'이라는 인물이 글 쓰는 것을 보면서 아래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것도 그냥 지문의 내용을 잘 읽었다면 바로 지울 수 있겠죠. 성의 없는 해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기본적인 고전 시가 해석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들만 복습했어도 할 수 있었을 것이구요.

③ '~로 써서 뵈되' 뒤에 각각 다른 인물들의 대사가 나오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④ '귀한 별호 퇴석'은 '전승산'이 화자의 글을 평가하며 화자를 일컬은 내용이고,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본인을 낮추어 부른 말이죠. 선비의 예법을 동원했는데 '야 이 천한 선비야'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두 표현은 다른 인물을 지칭하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⑤ 네.. 이것도 기본적인 고전 시가에 대한 해석력을 갖추고 글을 잘 읽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P.I.R.A.M 수능 국어 교재 홍보글

안녕하세요 피램입니다.

어느덧 정시 원서를 쓰는 때가 다가오고 있네요. 수능을 치른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각종 커뮤니티는 고3 및 n수생들의 각오로 가득하게 되겠죠.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가진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잘 와닿았을 텐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했더라면 학생들이 더 실력이 늘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반성들과 피드백 속에서 다시금 많이 성장한 한달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의 첫발로 저의 교재가 세상에 나옵니다.

제목은 "P.I.R.A.M 수능 국어"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수업을 하면서 얻었던 많은 내용들을 지난 1년간 나누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반응은 꽤나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탑은 피램이다, 정말 실전적이고 자세하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 1년간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재편집하고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해서 '가장 완벽한 국어 독학서'라고 자부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① "P.I.R.A.M 수능 국어"는 5단계로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제 닉네임인 'PIRAM'을 따서 'P - I - R - A - M'으로 이루어진 5단계의 구성으로 국어를 정복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단순한 난이도 순의 구성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다루고 (Preliminar)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Improve)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고 (Reinforce) 더 어려운 지문들을 통해 한 단계 진보하고 (Advance) 가장 어려웠던 2019학년도 수능을 풀어 보며 실력을 완성하도록 (Master) 구성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며 따라오다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국어영역 공부에 한 줄기 빛이 보일 것입니다.

② "P.I.R.A.M 수능 국어"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잡다한 기술이나 난해한 논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해야하는 생각'들을 짚어드립니다. 몇 되지 않는 '원칙'을 잡고 그 원칙으로 모든 지문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은 A4 한 두장 분량의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③ "P.I.R.A.M 수능 국어"의 해설은 실전적이고, 필연적입니다.

이 교재의 해설이 가장 '자세'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설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해설'의 기준은 여러분이 시험장이라는 '실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설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필연적'인 해설인지입니다. "P.I.R.A.M 수능 국어"는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답의 근거를 설명하는 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문의 해당 부분을 읽고 해야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 선지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이유 등을 짚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사고의 흐름을 짚으며 시험장에서 해야할 생각들을 정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④ "P.I.R.A.M 수능 국어"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장 '필연적이고 실전적인' 해설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설을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 등을 생각하며 공부하면 쑥쑥 오르는 국어 실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⑤ "P.I.R.A.M 수능 국어"는 여러분의 국어 공부를 수능 당일까지 책임집니다.

교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생 전용 카페에서 교재 내용 외의 다양한 자료와 칼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수월한 복습을 위해 교재의 문제만 편집된 파일, 어려워진 화작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 모든 문법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주간지, LEET/사관학교 등 '글을 읽는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비평가원 자료, 교육청 양치기를 위한 주간지 등이 업로드될 것입니다. 교재를 먼저 공부하신 후 시기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셔서 풍부한 국어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 대한 정오표 및 오타/오류 제보, 질문답변 등은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검토진 분들의 서평 일부입니다.

〔본 교재의 검토자로 선정된 후, 자료를 받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수능 국어 공부의 正道와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고, ~ (중략) ~ 지문 하나하나에 다른 교재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세세하고 필연적인 해설을 첨부하여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어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 (중략) ~이 교재는 이러한 수능의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책입니다. 잡다한 '스킬'을 다루지도, 난해한 '논리'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깔끔하고 담백한 '사고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중략) ~ 그 모두에게, 이 책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 교재는 국어공부의 필연적인 사고 흐름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짚어주고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기에 정말 깔끔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감히 이 책으로 국어공부를 시작하라 권하고 싶습니다. 이 교재에서 저자의 사고방식과 본인의 사고방식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 중 하나는 수험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간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기출을 분석'하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 이 책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하며 중요하게 느꼈던 '사고 흐름의 점검, 평가원이 삽입해 둔 개념어와 이를 판단하는 힌트의 파악, 글을 읽으면서 놓쳤던 요소 파악' 등, 한마디로 국어 영역을 대하는 태도의 '반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수능국어기출을 올바르게 공부해 2020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책입니다. 해설만 좋은 그저 그런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게 된다면 더 이상 국어는 막연한 과목이 아닐 것이고, 당신은 '혼자서' 국어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잡다하고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예리한 단 하나의 원칙으로 수능 국어를 꿰뚫어봅시다.]

다들 좋은 서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일관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관된 사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말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재는 2월쯤 출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홍보글을 올릴 텐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하는 대학에 붙으신 분들은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년을 수험생활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든, 결국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은 본인입니다. 먼 훗날 2019년을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2020 수능 대비 피램 수능 국어 수업 안내

국어가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워졌냐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문이 길었다고 합니다. 화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라고 말하면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런 수능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내린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글을 읽어 내는 기초 체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읽으며 글을 읽는 지구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

객관적으로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만'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출무용론'을 펼치는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고, 이는 낯선 텍스트를 많이 읽어 보는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구력'이란 본디 '기초 체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문제를 풀 줄도 모르면서 냅다 지구력을 기르겠다고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더 어려운 지문들을 대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러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평가원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기준을 알려 주기도 하고 수능 시험을 넘어 일상에서 글을 읽고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도구거든요. 일단 우리는 기출을 제대로 보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리트, 사관학교, 사설 모의고사 같은 '낯선 지문'을 통해서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말은 쉽습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해! 이것만 가진 채로 혼자 기출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바로 이때, '강의'나 '교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쓰는 사람들, 즉 '국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강의나 교재라면 자신이 하는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강의나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받아 적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제발 그들이 하는 '생각'을 분석해 보세요. 그들이 이 문장에서 어떤 생각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재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나 교재를 통해 얻은 '생각의 기준'이라는 '명시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암묵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기출 공부입니다. 단순히 몇 회독 했고, 누구 강의를 들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이 강의가 위에서 말하는 '강의나 교재'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뤄 드립니다. 단순한 기출 해설시간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길러드립니다.

이렇게 얻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까지 길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수업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수업 소개입니다!

1. 자기 소개

- 중학교 300등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2016학년도 국어영역 모든 시험 1등급
- 前) 신촌 orbi 독학 재수 학원 국어영역 멘토
- 국어영역 독학서 "P.I.R.A.M 수능 국어" 단독 저자 (2019년 상반기 출판 예정)
- 수험생 커뮤니티 베스트 칼럼니스트
- 누적 수강생 100여명 (성적 상승 사례 다수 보유)

2. 강의 소개

- 교재 : P.I.R.A.M 수능 국어 → 출판 전에는 원고를 제본해서 진행 (내용은 동일)

- 수업 : 총 5단계 구성

P(reliminar) step (1월)
- 비문학 : 글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 정립
- 문학 :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의 정리

I(mprove) step (2월~6월)
- 비문학 : 단 하나의 원칙으로 기출 문제 완벽 정복. 수능 국어 영역을 대하는 '기초 체력' 확립
- 문학 : '수능 문학'을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문학 정복

R(einforce) step (6월~7월)
- 비문학 : 어려운 '선지'와 '문제'를 뚫어내는 태도 확립
- 문학 : I step 복습 및 신규 수업

A(dvance) step (7월~9월)
- 비문학 : LEET, 사관학교 등 '고난도 비평가원 지문'으로 실력 완성
- 문학 : 수업 x , 신규 수업만 진행

M(aster) step (9월~수능)
- 비문학 + 문학 : 실전 모의고사 (추후 결정)로 '글을 읽어 내는 지구력' 최대치로 함양.

+ 3, 6,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진행

참고) 2020대비 피램 수능 국어 커리큘럼

for 2020 피램 국어	Preliminar step (1月)	Improve step (2月~6月)	Reinforce step (6月~7月)	Advance step (7月~9月)	Master step (9月~수능)
비문학(독서)	글 읽기의 기본 다지기	가장 완벽한 기출 정복	문제풀이 강화 훈련	실력 완성 (비평가원 고난도 지문)	실전 모의고사
문학	문학 개념어 공부	문학 가장 쉽게 정복하기	I step 복습	I step 복습	
화작문	수강생 카페 & 현장 자료로 제공				

-수업 형태 : 그룹 과외 수업 (스터디룸 사용) + 피드백시스템

-수업 시간 : 주 1회 3시간, 토 오후 1시~4시, 토 오후 7시~10시, 목 오후 7시~10시, 일 오후 6시~9시 + 금 오후 6시 30분~10시 대구 특강
→ 금 오후 6시30분~10시, 토 오후 7시~10시 수업, 일 오후 6시~9시 수업 우선 개강 (이 시간대를 먼저 모집합니다.)

참고) 2020 대비 피램 수능 국어 강의 스케쥴

for 2020 피램 국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						14:00 ~ 17:00 강남역 (2월 9일 개강)	
저녁				19:00 ~ 22:00 강남역 (2월 7일 개강)	18:30 ~ 22:00 대구 범어동 (1월 18일 ~ 3월 8일 특강)	19:00 ~ 22:00 강남역 (1월 5일 개강)	18:00 ~ 21:00 화곡역 (1월 6일 개강)

참고) 2020 피램 대구 겨울 특강 커리큘럼

날짜	Step	비문학	문학	화작문
1/18	P step	글 읽기의 기본 다지기	기출로 보는 문학 개념어	수강생 카페 & 현장 자료로 제공
1/25	I step	비교/대조 + 시간순 서술	문학 전반 + 현대시	
2/1		문제해결	시가 복합	
2/8		과정서술	소설 & 극문학	
2/15		비례/증감 관계	제시문 복합	
2/22	R step	필연적 문제풀이	헷갈리는 선지 판단	
3/1	A step			
3/8	M step	2019 수능 해설 강의		

- 수업 장소 : 강남역 근처 스터디룸, 화곡역 근처 스터디룸, 대구 범어동 근처 스터디룸 (추후 공지)

- 커리큘럼 :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제 수업의 모토는 '항상 같은 말 하기'입니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항상 같은 원칙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수업에 참여하셔도 수업을 따라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과제 : 주간 피램 과제 배부 (교육청 양치기 → 리트 / 사관학교 → 문법 주간지 → 기출 마무리 주간지)

- 수강생 카페 운영 : 질문답변 및 다양한 수강생 전용 자료 업로드

3. 피드백 시스템 소개 : 그룹수업 형태이지만 학생 한명 한명 신경써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교 고용시 더 많은 시스템이 추가될 것입니다.

- 주간 피램 제공 : 교육청 및 EBS 지문들과 해설, 고난도 지문, 문법 기출문제 등(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배부)을 담은 주간 자료 제공. (조교 고용시 숙제 검사 및 피드백)

- 미니 테스트 시행 (I step 이후에 진행) :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미니 테스트 시행.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경험 가능.

- 상시 상담 : 카톡 및 카페 등을 이용한 상시 상담 가능.

- 수강생 전용 카페 : 수강생 및 교재 구매자만 사용가능한 카페 개설. 질의 응답 및 각종 자료, 칼럼 저장 용도로 사용

- 모의고사 사고의 흐름 해설지 제공 : 각 모의고사마다 강사가 푼 과정을 적어둔 사고의 흐름 + 실제 강사가 푼 시험지 사본 제공

- 정시 원서 접수 시 간단한 컨설팅 :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컨설팅 제공.

- 입시 완료 후 단체식사 : 좋은 곳 갑니다! *^^*

- 목표대학 이상 합격 시 (소정의) 장학금 지원 : 규모는 추후 결정.

4. 수업신청 방법

고3/N수생이 되는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가능 시간/ 전과목 성적대/ 연락처를 적어서 쪽지나 문자,카톡(010 팔4이6 8육21)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쪽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진 수능 국어, 가장 간단한 원칙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